

섬김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이승렬 목사



갈수록 세상살이가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아픔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평생 직장으로 알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던 직장을 구조조정이니 명퇴·조퇴니 하는 이름 아래 원치 않게 떠나야 하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또 그런 아픔들이 재현되고 있어서 우리 주변의 적지 않은 분들이 생존의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실망, 분노와 의욕상실, 두려움과 불안에 어깨를 떨구며 사람들과 눈맞춤을 애써 피하는 눈길들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부부간, 부자지간에 갈등이 생기고, 가족이 해체되는 가정 파탄의 아픔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제의 중소기업의 사장님이나 기업의 일선에서 부지런히 뛰어나다던 회사의 임직원들이 줄지에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하여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신문지 한 장과 친숙한 삶으로 변하여 차가운 시멘트바닥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허기를 무료 급식소에서 얻어 먹는 한 끼의 식사로 때우고, 여기저기 소문난 노숙자를 위한 쉼터와 몇몇 알려진 교회 등지를 순회하면서 용돈을 얻어 쓰고, 지하철 안에서 잠으로 시간을 때우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 교회 등에서 한동안 열심히 돌보던 봉사의 손길도 이제는 뜸해졌습니다. 저들의 비참한 삶은 이제 더 이상 언론의 취재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다시금 숨통이 트여 밥줄이나 먹게 되었다고, 언제 IMF를 겪었느냐는 듯 다 잊어버리고 사치와 낭비가 다시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수입 명품점들이 다시 활기를 띠며, 애견들을 위한 사치스러운 외국제 치장품목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애완견을 위한 트렌치 코트 한 벌에 수십 만원을 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가 중심이 되어버린 세계화 시대는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시대, 즉 후기현대사회 혹은 후기산업화시대에 있어서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기득권과 부와 기회를 독차지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가난과 생존의 문제에 허덕이며 살게 되는 비인간화, 탈인간화의 현상이 극대화되어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처절한 생존 경쟁의 약육강식이 삶의 원칙이 되어 버려서 어디서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서로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들에 넉넉한 인간미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삶은 더욱 중요한 사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계명을 받들어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웃 사랑은 부수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소극적인 윤리적 과제로 생각해왔던 우리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을 한 맥락에서 생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웃을 사랑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진다는 명백한 진리를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회윤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구원 받은 백성들의 중심적인 과제와 사명과 책임이요, 종말론적인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약자들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고아, 독거 노인, 미혼모, 각종 장애인, 불우한 청소년, 옥에 갇힌 분들과 출소한 분들,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불치병 환자, 외국인 노동자, 피난민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2면으로)



함께함은: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27호(격월간) 30호

발행일 2001년 5월 2일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우편번호 138-220

(정신여중·고 교내)

tel. 02-416-5181~2

fax. 02-416-518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rd-church.or.kr>

차례

- 1 섬김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 이승렬 목사
- 2 사랑의 실천 / 이상운 집사
- 3 하나님 사랑=부모님 공경 / 류달현 안수집사
- 4-5 농촌 교회 방문 일기 / 이명숙 집사
임마누엘 재할원을 다녀와서 / 이미라
- 6 깨어진 나의 꿈 / 최은희 집사
- 7 참 편안한 관심 / 김정원
- 8-10 특집
지금 중학생은 / 민성훈 집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 김정희
청소년의 시각으로 본 나라의 모습 / 오자형
청소년의 시각으로 본 교회의 모습 / 최종혜
5월에 드리는 향기나는 편지 / 황소윤
- 10 신앙클리닉, 알립니다
- 11 성경퍼즐
주님 오늘 하루를 / 윤병환
- 12 뱀에로 / 이수영 집사
교회예절, 교회소식

사랑의 실천

이상윤 집사(차량부, 회락 7구역)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성경 귀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7-8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세상의 삶 속에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부 부원으로 또한 차량부 부원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의 기초로 헌신 없이는 어떤 봉사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찾는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고 자 차량 봉사를 시작한 지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일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차량 봉사는 8시 40분경에 1부 봉사를 끝내고 20분간 차량 부원들이 함께 모여서 2부, 3부 예배에 참석할 성도님들을 위한 차량 봉사 계획을 세우며 기도로 회의를 끝내고 9시부터 2부 봉사를 시작하여 13시경에 3부 봉사가 끝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주일 아침 교회에 들어오실 때 차량 부원들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로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귀가 할 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란 인사로 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부원들의 사랑이 담긴 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차량 부원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드리며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나 눈 오는 날 그리고 여름의 장마철에는 주차 사정이 좋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에 앞으로 주차 공간은 갈수록 협소해지므로 성도님들께서 주차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지면을 통해 부탁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차량 봉사를 통해 섬기는 것은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며, 수고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의 봉사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든 봉사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이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역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손 안에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 결국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고 봄부터 여름 내내 땀흘려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차량 부원 모두가 소망 가운데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봉사의 참 뜻을 음미해 봅니다.

찬송가 260장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 봅시다

일을 마쳐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후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1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직적 관계에서의 섬김은 열심히 생동감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웃간의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과제는 소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교회주의, 교단이기주의, 교회성장 제일주의와 기복신앙에 물들어 본질적인 섬김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전문성 상실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리고 마는 정도에 그치곤 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공생과 상생의 정신은 생명운동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적이며 사회책임적 윤리관이 부족하고 개인주의적 기복 신앙생활에 익숙해 왔던 한국 교회는 이제 성숙한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신앙의 근본적인 섬김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어느새 절기적 의식과 행사로 지내버리고 마는 소극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사명은 우리의 이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끊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사회선교적 사회봉사적인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교회는 이런 사명과 책임에 충실한 교회로서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부모님 공경

류달현 안수집사(회락 10구역)



만물이 소생하고 봄 향기가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거울로 뒤돌아보고 성찰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 놓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 가정이 진정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정직한 가정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가정이요, 온 가족이 하나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루게 한 부부는 참된 사랑으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사랑의 힘으로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고 자식을 위하여 진실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식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조그만 교통법규조차 지키도록 노력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자식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핵가족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과 윤리관 때문에 부모를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고 섬겼던 아름다운 전통이 이 땅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황혼기에 접어든 노부모님들이 자식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구박 받기도하고 홀로 외롭게 인생을 마감하는 불쌍한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기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가 서로 만나지 못하였으면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생명의 통로가 되어 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창조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요 가법계 여기는 무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생명이 부모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아부었습니다.

설사 부모님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식은 그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

로 부모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을 때 부모의 죄책감과 수치에서 자유하는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모 사랑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기에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은 팔 심은 데서 콩이 날 수 있고 거짓을 심고 진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사랑 받기 원하면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바쁘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 후회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열심히 추도 예배 드리면 무엇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부모님과 항상 함께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루마니아의 차우세슈크와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늑대인 부모님을 버리고 도망 쳤고, 그들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왕의 위대함은 이렇듯 부모님에 대한 효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부모님은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광아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며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아픔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기에 자식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의 무게를 지니고 계시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부모가 자식보다 급변하는 세상 지식에 대하여 모를 수도 있고 뒤떨어진 부분이 많을 수도 있지만 자식이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부모에게 있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요,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여 가는 길이요, 자식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여주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끝으로,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어머니 모니카처럼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부모의 기도로 모든 믿음의 자식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 받고 존경 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시다. 많은 재산보다는 아름다운 믿음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신실한 부모가 됩시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와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농촌 교회 방문 일기

이명숙 집사(충성 20구역)



첫째 날(2001년 3월 14일)

잔뜩 찌푸린 하늘과 선교 여행이라는 다소 부담스런 여행 주제가 마음을 약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우들과 처음으로 함께 하는 여행이라는 것과, 선교 여행을 농촌 교회 방문으로 바꾸어 생각하니 한결 가벼워지는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신 강석영 목사님의 기도 후 국내외 선교회원 30명이 교회를 출발한 시각은 예정보다 조금 지체된 9시 15분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광은 봄이라기보다 아직도 올썩어있는 겨울이었지만 버스 안의 우리들은 도란도란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남으로 내려 갔습니다. 도중 백양사 입구에서 값에 비해 맛과 질이 훌륭한 남도 산채정식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고 휴식을 취한 후 최종 목적지인 전남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에 오후 5시쯤에 도착하였습니다.

섬진강 지류인 보성강을 끼고 달리다가 죽곡면 소재지에서 국도를 버리고 산골짜기 길로 이십 여리 올라가니 두 내의 합수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인 봉정마을이 있었고 냇가 건너편에 오래된 고목과 함께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봉정 교회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1994년 4월에 이 교회에 부임하신 정창성 목사님과 사모님의 환영을 받은 후 바로 교회로 들어가 강목사님의 인도로 기도를 가졌습니다. 먼저 봉정 교회를 위하여, 다음은 정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봉정리 지역 주민과 참석한 선교회원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회가 진행됨에 따라 썰렁하게만 느껴지던 예배당이 점차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정목사님의 본인 소개와 농촌 교회 실상을 설명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호기심(?)으로 귀를 기울이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놀라움과 부끄러움으로 숙여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대도시 중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사 생활, 뒤늦게 시작한 신학 공부와 농촌 목회, 예기치 못한 골육종암과의 투병, 그리고 왼쪽다리의 절단, 도시로 떠나는 주민들과 교인들을 바라보며 피

눈물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당신의 전부를 맡기고 살아오신 지난날들, 그리고 오늘까지 봉정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섬기고 계신 목사님의 지난 이야기를 들으니 저러오는 가슴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현지 교인 16명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백술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강목사님의 "협력하여 주님의 법을 성취하자"라는 주제의 말씀은 농촌 교회 지원에 대한 성서적 뿌리를 찾아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 현지 교우들과의 포옹, 특히 정목사님과 참석한 모두와의 개인적인 포옹은 마음 속의 파스함을 넘어선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어두워진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오염되지 않은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 가운데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우리가 설자리는 과연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벽지의 농촌 교회는 연륜이 있더라도 개척 선교지와 같다"는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담고 밤늦은 시각 봉정리를 떠나 숙소인 장성의 한마음공동체로 향했습니다.

둘째 날(2001년 3월 15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도회의 늪에서 고향을 잊고 사는 사람들

나비가 날고 반딧불이 밤을 밝히는

여러분의 고향을 만들었습니다.

생명과 환경은 우리들 가까이

숨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 남면 마령리 총 일만 여평에 자리잡고 있는 한마음공동체 안내 팸플릿 서문입니다. 전날의 강행군으로 다소 피곤했지만 아침 7시 기도 모임으로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가늠할 수가 없었는데 아침에 둘러보니 체계적인 시설과 규모를 갖춘 자연 학습 체험장이었습니다.

한마음 자연학교의 교장이신 남상도 목사님은 18년 전 백운 교회에 오셨습니다. 초기에는 선교와 더불어 정부의 잘못된 영농 정책에 대항하여 농민 운동을 주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자연 친화적인 유기농 재배와 도시농촌간 직거래 장터 개설 등으로 농민 소득 증대에 혼신의 정열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온 마을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백운 교회를 자력으로 신축하셨고, 직거래 장터는 영농법인으로, 2년 전 인수한 폐

교된 초등학교는 한마음 자연학교로 새로운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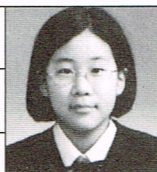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농촌 문화의 개발 내지는 보급을 통해서 농촌 교회 선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농촌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보는 것 같아 전날의 울적했던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마음 공동체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18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노고에 깊은 존경과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영농법인인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참 먹거리를 하나씩 사 들고는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산 자는 떠나고 죽은 자는 돌아온다”는 오늘날의 농촌 현실,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인구와 이 분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 농촌 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전통 문화와의 갈등, 최저 생계유지가 힘든 교역자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 단순히 도시 교회의 관심과 지원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인 농촌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 위에 농촌 교회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원론적인 발상을 해보며, “선교란 다른 문화에 자신을 열고 그 문화 속에 살아 있는 활력에 일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는 어느 선교사의 말씀을 떠올리며 1박 2일의 짧은 여행을 마쳤습니다.

기 고

임마누엘 재활원을 다녀와서

이미라(중등부)



중등부 겨울 수련회 일정에 따라 우리조와 5조는 거여동에 있는 임마누엘 재활원에 갔다. 재활원이라 해서 폐품이나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다.

우리가 간 임마누엘 재활원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선생님께서 재활원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서로 자기 옆에 앉으라며 반갑게 맞이하는 그들의

맑고 순수한 눈을 보니 나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말끔하게 사라졌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의 인도로 찬양을 했는데 그 장애인들의 찬양소리가 우리 중등부 학생들 소리보다 훨씬 크게 들렸다. 나는 그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정상인 우리보다 장애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 찬양을 즐겁게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부르고 있었다.

찬양이 끝난 뒤 목사님이 오셨다. 그 분은 목발을 짚고 오셨다. 목사님은 몸이 불편하신데도 임마누엘 재활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시다니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예배 시간에 장애인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 수 없었지만 간절하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았을 것 같았고 내 마음 깊숙히 전해왔다. 임마누엘 식구들은 우리를 위해 찬양도 하고 진심으로 우리를 환영했는데 우리는 마음의 준비조차 하지 못했다. 이 장애인들이 우리를 위해 찬양을 준비했는데 왜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못했을까?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못한게 너무나 아쉬웠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꼼지락 거렸지만 장애인들은 점잖게 움직이지 않고 진지하게 설교를 들으며 “아멘”하고 답했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외어서 불렀다. 그들이 외어서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무려 50곡이나 된다고 하니 그만큼 찬송을 많이 불렀다는 증거가 아닌가. 참으로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예배가 끝난 후 지하로 내려가서 종이봉투 접기를 했는데, 그들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능숙하고 빠르게 접었다. 약 20분 정도 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하고 싶은 듯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임마누엘 재활원을 떠나오면서 그들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참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함을 강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새삼 깨닫게 해 준 하루였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진 나의 꿈

최은희 C 집사(온유 15교구)



섬진강 흐르는 경남 하동이 고향인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칠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저의 꿈은 외교관이 되어 세계를 두루다니며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적 고모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장로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별문제 없이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꿈이 산산이 부서진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카투사로 있던 친오빠가 권신찬 목사님이 운영하는 구원과 침례교회에 한번 가보라고 해서, 다니던 장로교를 뒤로하고 구원파에 매달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미술대학을 나온 그 이듬해 저는 연애결혼으로 제2의 생활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장 환경이 달랐던 남편의 성격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서로 사랑만 하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애와 결혼은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성격 차이, 독선 그 무엇보다 성격이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서로 세월을 보내는 남편의 주벽, 지금 생각해보니 나 자신이 너무 바보스러웠습니다. 오직 구원은 구원파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는 세뇌교육으로 최면에 빠져들어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사건, 오대양사건, 한강유람선, 세모의 삼우트레이딩이란 회사를 살려야 교회가 산다는 명목으로 교인들의 전 재산을 바칠 것을 강요했고, 일부 교인들은 남의 돈을 빌려서 교회에다 바치기도 해서 파탄이 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집단 자살사건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외교관이 되어 그림을 그리면서 산다는 나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한 남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산다는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어린 자식 둘을 남겨 두고 이혼이란 아픔을 겪으면서 저는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흙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자식 둘을 두고 온 나의 삶이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세상을 살았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다면 저에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주지 않

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우울증에다 자폐증 환자처럼 생활하다가 2년 후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를 통하여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보았지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남자의 사랑에 폭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도 건어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세상에서 행복은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안에서 있을 때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가서 주옥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까지 세상의 쥐엄열매만 먹고 살아왔던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작년 11월 초겨울 이혼한 아이들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다시 한 번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전 구원파에만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아이들의 아버지를 구원시켰으리라!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매일 눈물로 기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까지 헤어져 살아야만 했던 두 아들과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좀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특수 선교부가 생긴다는 것을 주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내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를 만나야 된다고 먼저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에게 저는 재소자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 청소년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선교사님의 권유로 교도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푸른 죄수복을 입은 그들을 볼 때에 두려운 마음도 앞섰지만, 그들을 만나는 회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픔이 많았고 '왜' 하나님이 특수선교로 불러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 같이 깨어진 가족의 아픔, 사랑이 그리워 몸부림치는 그들을 만남으로서 가족의 사랑이 귀중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 좇아 살던 미련했던 나,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나, 세상을 향하여 쥐엄 열매를 먹고 사는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먹고 사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글을 맺습니다.

참 편안한 관심

김정원(살롱 성가대)

따스한 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히는 봄입니다. 급한 전화를 받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정원이 온통 노란 개나리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엇그제까지만 해도 수줍은 꽃봉오리가 언제 이렇게 활짝 피었을까? 아무튼 좋았습니다. 계절을 느끼는 것 인지 아니면 생명을 느끼는 것인지 함께 느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모양이나 색깔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나무라고, 꽃이라고만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참 편안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런 편안한 무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 그렇고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실상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이런 일상의 사소한 관심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어느 시골 작은 학교에 키 작은 외톨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에 항상 풀이 죽어 있었고 모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없을 만큼 힘겹게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들 역시 원래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며 소극적인 모습만을 꾸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작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을까?' 선생님은 그 아이를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이야! 이리 온, 키가 작은 것은 놀림감이 되지 않는단다.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네가 작을지 모르겠지만 저기, 저 푸른 하늘에서부터 네 키를 잰다면 이 학교에서 네가 가장 크다." 이 말을 들은 아이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관심을 가져준다면 어떨까요?

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놀랄 만한 인기를 누린 비결도 바로 이러한 관심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비서인 제임스 아모스는 <시종의 영웅인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에 대해 여쭙어 본적

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메추라기를 본적이 없었으므로 대통령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 우리집으로 전화가 걸려 왔더군요.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대통령의 전화라고 했습니다. 우리집 창문 밖에 메추라기가 앉아 있으니 내다 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와같이 세밀한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집 옆을 지나가실 때는 우리가 눈에 띄지 않을 때에도 '여보게, 제임스'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날 때마다 이렇게 다정한 인사를 해 주신 겁니다."

피고용인들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피고용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좋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입니다. 민간인이 된 루즈벨트는 어느 날, 태프트 대통령 부처가 출타 중일 때에 백악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자신이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 심지어는 가정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는 사실을 보면 평범한 사람에게도 솔직한 애정을 품고 있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 주방 보조인 앨리스를 만났을 때 요즘도 그녀가 옥수수빵을 만드는지 물었습니다. 가끔 직원들을 위해 만들기는 하지만 잊본들은 드시지 않는다고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면,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 말해주겠네." 앨리스가 쟁반에 빵을 담아 드렸더니 루즈벨트는 그 빵을 드시면서 걸어가다가 정원사나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과거에 부르시던 그대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라고 40년 동안 백악관의 수석 집사를 지낸 아이크 후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기쁜 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만금을 준다 해도 아무도 이 날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은 그의 일상의 사소한 관심에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동료, 그리고 지금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은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이며 시간과 물질과 정성으로 도와줄 때 기적을 낳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세요. 오늘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편안한 무관심이 아닌 참으로 편안한 관심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중학생들은

민성홍 집사(정신여중 교사, 자비 2구역)

지금의 청소년들은(13~20세) Y세대라고 합니다. 전후 베이비붐(1950, 60년대)에 출생한 세대를 부모로 하여, 자녀수가 1-2명인 소가족에서 경제적인 뒷받침과 함께 자기중심적으로 키워진 세대입니다. 이들은 또 대부분 컴퓨터를 보유(60%)하며 인터넷으로 과제물을 준비하고 PC통신과 휴대폰으로 대화하고 컴퓨터 오락을 즐기는 컴퓨터 세대입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중학생들은 어른스러움과 유아스러움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방과후 친구를 만날 때면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파우더도 바르고 머리를 길게 풀고 손톱을 길게 기릅니다. 그들의 멋내기에는 모범생과 문제 학생의 구분이 없습니다. 꾸미기와 만들기를 잘합니다. 다이어리 꾸미기는 아주 훌륭합니다. 바쁜 학원 스케줄, 학원 숙제, 학교 숙제, 학교 행사, 친구 모임, 친구 생일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모든 것을 일일이 체크하며 관리를 잘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또래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 그들끼리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라고 착하게 대답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또 교사보다 친분 있는 특정 상급생들에게 더 깽뚫이 인사합니다. 반면, 수업 후 청소할 때보면 선뜻 나서서 못합니다. 하기 싫어하는 것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는지 정답을 알고 하겠다는 거지요, 선생님이 나서서 빗자루는 이렇게, 걸레질은 이렇게 하고 가르쳐주면 '제가 할게요' 하지 않고 구경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부모(엄마)와 상의 하려 해서 실수를 통해 배우는 기회가 줄어들지요.

학급에서 따돌림이 극성을 떨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학생 아무개가 '무섭다', '찌증 난다'는 말은 싫다는 표현의 다른 말입니다. 따돌리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나쁜점을 고쳐 줘야 한다' 이게 그들의 명분입니다. 대상은 반발하지 못하거나, 주위에 친구가 적거나,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전학생등이지만,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따돌림은 집단적이고 악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단체에 대한 불만과 미움 등을 전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잘못해서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다가도 따돌림당하는 학생을 향해 눈을 흘깁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학생의 주변에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친구로 남아 있으면 이 일은 쉽게 사그라 들 수 있습니다.

학년의 구별없이 학생의 고민은 80% 이상이 외모·친구·가정 문제

가 아닌 공부라고 대답합니다. 학력은 저하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학생들의 과외나 학원 다니는 시간들은 전보다 더 부담이 되고 있어, 방과후 학교 활동이 잘 안될 정도입니다. 환경미화 준비나, 체육대회 예선 준비, 합창대회 준비 등의 과외활동 시간들이 학원시간에 밀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예전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나쁠 때, 반 전체를 기합을 주거나 꾸중을 하면 다음 성적이 향상되었지만, 요즘은 반 전체의 분위기가 반응이 없어지고 가라 앉으며 성적이 확실히 더 하락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 할 때는 칭찬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적절한 꾸지람은 사례별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적당한 또는 정당한 책망은 교사와 학생간에 신뢰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계기가 됩니다.

한편, 문제 학생의 증가 추세는 복잡한 여러 사회 문제와 결손 가정의 증가로 볼 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 숫자는 담임 선생님이 노출하지 않고 선도시려고 애쓰기 때문에 공개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무단 결석이 일주일 이상 되면 학생이 사회에서 경제적인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주유소·다방·단란주점 등이 그 일터이고 같은 또래, 선배 등과 어울려 지냅니다. 가출하지 않는 친구 중에도 학교 생활에 적응이 잘 안되는 학생은 주말이면이면 백화점 앞이나 놀이공원 등에 서성이며 오빠들을 만나고, 한강 둔치 같은 곳에서 밤새워 얘기하고 놀입니다. 아이들은 갈 곳이 없고, 대안 문화가 형성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교회가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개방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인정 받고 싶어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교사에게도 대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성적이나 가정 문제, 친구 관계 등이 노출되지 않는 교회는 그들이 또 다른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범생이든 문제아든, 모두 고민들을 갖고 있고, 친구가 필요합니다. 계속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배려 되고, 교회 안에서 지내게 된다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니까요.